

- 주요 뉴스: 미국 트럼프, 상호관세 유예 종료 전 단계별 협정 추진 상원은 감세법안 승인
 - 연준 파월 의장, 경제 지표 반영하여 금리 결정. 영란은행 총재는 금리인하 가능성 제시
 - 미국 5월 구인건수, 예상치 상회. 6월 ISM 제조업 PMI은 확장의 기준 50 하회 지속
 - 유로존 6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비 소폭 상승. 7월 금리 동결 및 9월 인하 가능성 제기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트럼프 감세 법안 상원 통과, 연준 파월 의장 발언 등이 영향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기술주 중심의 차익 매물 출회, Tesla 약세 등으로 하락
유로 Stoxx600지수는 미국과의 무역협상 난항 등으로 0.2%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상원의 감세법안 승인에 따른 재정 우려 재부각 등이 반영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2%, 0.4%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5월 구인건수의 예상치 상회 등으로 상승
독일은 ECB 목표에 부합하는 유로존 6월 소비자물가지수 등으로 3bp 하락

※ 뉴욕 1M NDF 증가 1353.9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356.6원, 0.05% 상승). 한국 CDS 약보합

		7/1일	6/30일	전일대비			7/1일	6/30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198.0	6,205.0	-0.11%	국채 금리 10y	미국	4.24%	4.23%	+1bp
	유럽	540.25	541.37	-0.21%		독일	2.57%	2.61%	-3bp
	중국	3,457.7	3,444.4	+0.39%		영국	4.45%	4.49%	-4bp
	일본	39,986	40,487	-1.24%	CDS 5y	한국	26bp	26bp	-0bp
	한국	3,089.7	3,071.7	+0.58%		중국	50bp	51bp	-1bp
환율	달러지수	96.65	96.88	-0.23%	위험 지표	EMBI+	-	370	-
	유로화	1.1806	1.1787	+0.16%		VIX	16.83	16.73	+0.60%
	엔화	143.42	144.03	+0.43%		WTI유	65.45	65.11	+0.52%
	위안화	7.1658	7.1638	-0.03%	원자재	구리	504.8	503.0	+0.36%
	원화	1,355.9	1,350.0	-0.44%		금	3,338.8	3,303.1	+1.08%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트럼프, 상호관세 유예 종료 전 단계별 협정 추진. 상원은 감세법안 승인

- F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7/9일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연장에 부정적. 다만 포괄적 협상 대신 협상에 적극적인 국가들과 단계별 협정을 추진. 또한 먼저 9일 전까지 일부 국가와 원칙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후 해당 국가들과 협상이 계속되는 동안 10%의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
- 9일 전까지 원칙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국가에 대한 관세율은 아직 불분명(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에 10~50%의 관세율을 통보할 것이라고 언급).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미국산 쌀 수입 거부와 자동차 무역 불균형을 비판하면서 고율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언. 인도와는 시장 개방 조건부의 협상 타결 가능성을 시사
- 한편 상원은 3.3조 달러 규모의 대규모 감세 및 지출삭감 법안을 51대 50의 근소한 표차로 가결. 해당 법안은 감세 정책 영구 연장, 사회보장제도 예산 삭감, 국방 및 이민단속 예산 증액 등을 포함하여 트럼프의 핵심 공약을 반영. 한편, 이번 법안의 시행을 위해서는 하원 통과만 남은 상태
- 트럼프 대통령은 7/4일 서명을 목표로 제시. 하지만 이후에 진행될 하원의 가결 여부는 불확실. 공화당이 하원에서 근소하게 다수를 차지하지만 당내 강경파와 온건파 간 이견이 지속. 전문가들은 감세법안 관련하여 투자자들이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고 지적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연준 파월 의장, 경제 지표 반영하여 금리 결정. 영란은행 총재는 금리인하 가능성 제시

- ECB 포럼에서 연준 파월 의장은 7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지만, 경제 지표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발언. 트럼프 관세정책이 없었다면 보다 신속한 금리인하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언급. 라가르드 ECB 총재는 최근 유로화의 달러화 대비 강세는 유로존 경제가 강하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평가
- 영란은행의 베일리 총재는 경제와 고용시장 냉각 조짐 속에서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 일본은행 우에다 총재는 현행 금리가 중립 수준 이하이며, 인플레이션이 천천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언. 근원 인플레이션 강도와 미국 관세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금리를 결정하겠다고 부연

■ 미국 5월 구인건수, 예상치 상회. 6월 ISM 제조업 PMI는 확장의 기준 50 하회 지속

- 5월 구인건수는 776.9만건으로 전월(739.5만건) 및 예상치(730만건) 상회. 부문별로 여가·숙박업에서 큰 폭 증가하여 계절적 영향이 강한 모습. 해고는 전월비 감소(178.9만건→160.1만건)하여 노동시장이 안정적임을 시사. 채용 역시 기업들이 기존 직원 유지에 집중하면서 감소(561.5만건→550.3만건)
- 6월 ISM 제조업 PMI는 49.0으로 전월(48.5)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4개월 연속 확장의 기준(50) 하회. 세부항목 가운데 신규수주(47.6→46.4)와 고용(46.8→45.0) 등이 전월에 비해 부진, 관세 불확실성이 기업 활동에 타격을 주고 있음을 제시

■ 유로존 6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비 소폭 상승. 7월 금리 동결 및 9월 인하 가능성 제기

-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동월비 2.0% 올라 전월(1.9%) 대비 높은 수준이나 ECB 목표치(연율 2%)에 부합. 전월비 기준으로는 상승(0.0%→0.3%). 근원 CPI의 경우 연간 및 월간 상승률이 각각 보합(2.3%→2.3%) 및 오름세 강화(0.0%→0.4%)
- 이번 결과는 에너지 가격 하락, 유로화 강세, 경기 둔화 등에 기인. 시장에서는 7월 금리 동결을 예상하지만 9월에는 서비스부문 디스인플레이션의 재개 가능성 등으로 25bp의 추가 금리인하 전망이 우세(Bloomberg Economics)

■ ECB 주요 인사, 유로화 강세 우려. 현재 물가는 안정적이나 향후 전망에는 신중

- 권도스 부총재는 유로화당 1.20달러를 넘어서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최근 수준(1.17~1.20달러)은 수용 가능하지만 상승 속도가 우려된다고 발언. 독일중앙은행 총재 나겔 위원은 현재 물가가 안정적이나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9월 경제전망 발표 이후 금리 행방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

■ 중국 6월 차이신 제조업 PMI, 확장의 기준 50 상회. 내수 신규주문 회복 반영

- 6월 제조업 PMI는 50.4를 기록, 전월(48.3) 대비 상승하며 확장의 기준 50을 상회. 이는 내수 신규주문 증가에 따른 생산 확대에 기인. 다만 수출 신규주문은 3개월 연속 위축되며 대외 환경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7/2 현지시각 기준)

- 미국 6월 ADP 민간고용, ECB 라가라드 총재 발언, 유로존 5월 실업률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베센트의 헤지펀드식 재무부 운영, 금융억압 등의 부작용 초래할 우려 - 블룸버그**
(Bessent Is Treating Treasury Like a Hedge Fund)
 - 베센트 재무장관은 높은 차입비용과 금리인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단기 국채 발행을 늘리고 장기 국채 발행은 일정 수준에서 제한할 방침. 이는 현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일 수 있으나, 정기적이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국채발행 원칙을 위반. 또한 대규모 단기 국채 발행은 결국 장기 금리 상승 압력을 높일 소지
 - 이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은행 자본규제 완화 등을 통해 국채금리 하락을 유도. 이는 나름의 장점이 있으나 궁극적으로 금융억압(인위적으로 저금리 유지하고 자본흐름을 통제)을 통한 금융시장 왜곡을 유발. 특히 베센트 장관의 금리 예측이 정확하지 않다면 막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어 주의 요구
- **달러화 약세, 안전자산 지위 약화 보다는 경제 여건 반영한 합리적 현상 - Financial Times**
(The fall in the dollar is not scary)
 - 미국 달러화 약세가 지속.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통화정책 혼란, 연준의 독립성 훼손 우려 등에 따른 달러화의 안전자산 지위 약화가 이러한 현상에 기여한다고 평가. 하지만 ▲2년·10년·30년 국채 수익률 하락, ▲인플레이션 기대 하락, ▲주가 사상 최고치, ▲회사채 스프레드 축소 등은 금융시장이 안정적임을 시사
 - 일부에서는 금융시장이 상황을 일시적으로 왜곡한다고 주장. 하지만, 최근 경제 성장 둔화 조짐에 따른 금리인하 기대가 높아지고, 이를 반영하여 장기채 금리가 하락한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달러화 약세는 합리적 현상.
- **미국 트럼프의 감세법안, 대중적 피해 확대하는 자해 행위일 소지 - Financial Times**
(Donald Trump's big, beautiful act of self-harm)
 - 트럼프의 BBB(big beautiful bill) 법안은 최빈곤층의 메디케이드(Medicaid) 혜택을 대폭 삭감하고, 이를 부유층 감세의 재원으로 충당. 이는 재정의 상향식 재분배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노동자 계층에 타격을 주며, 트럼프의 공약에도 위배. 일론 머스크 등 일부 부유층도 부채 우려 등으로 해당 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
 - 또한, 물가 하락과 소득 증가 공약은 반대 결과에 직면하고 있으며, 일부 여론조사에서 BBB법안 찬성률이 유권자의 30% 미만에 그치는 등 국민적 반발도 확산. 아울러 트럼프 무역 및 감세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심화로 유권자의 경제적 타격도 예상. 공화당은 역(逆)로빈후드 예산 등으로 다음 선거에서 패배할 가능성

- **중국의 표면적 경제 안정기, 고질적 문제 해결의 토대로 활용될 필요** - Financial Times
(A resurgent China should do the hard work now)
 - 중국 경제는 당초 예상보다 양호한 모습. 금년 상반기 5%의 성장률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며 산업생산, 소매판매, 투자 등도 일정 수준 이상의 성장세 시현. 이에 더해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관세 부과 유예를 유도하였고, 딥시크는 중국의 기술적 우수성을 제시. 또한 주가는 상승하고 있으며 자본유출은 제한적
 - 다만 이러한 여건에서도 일부 고질적 문제가 지속.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고 디플레이션 고착화 징후는 생산과 소비 수요의 불균형을 반영. 또한 주택경기 부진, 지방정부의 과도한 부채 등도 위험 요인
 - 이를 감안하면 당국은 현재 보유한 재정 여력을 활용하여 단기 성장을 촉진하면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좀 더 노력할 필요. 구체적으로 사회 안전망 강화, 시장 자유화를 통한 투자 촉진,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 관계 재편 등이 요구
- **미국 트럼프의 1%p 금리인하 주장은 과도. 연준에 대한 압력 지양할 필요** - 블룸버그
(If Anyone Needs Independence Day, It's the Fed)
- **미국 달러화 하방 압력, 외국인 투자자의 미국 주식 환율 헤지 확대로 가중될 소지** - Reuters
(Foreign investors increase dollar hedges on US stock portfolios)
- **유럽의 올바른 핵사용, 에너지 비용 절감·보안 강화·녹색 전환 등에 긍정적** - 블룸버그
(Europe Should Stop Worrying and Learn to Love Nuclear)
- **미국의 자국 기업 특별혜택(세금 감면 등) 요구, 여타국 기업 어려움은 증폭** - Financial Times
(A new front in Trump's war on the global economy)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